1986.12.24.

제가 이런 말씀을 想起시키면서 결코 힘의 행사가 政治의 手段일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發言制限時間초과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

(發言時間制限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部分)

本議員은 與野 指導者들이 진지한 討議를 통해 現實認識을 함께 하고 改憲問題에 合意를 만들어 내기를 진심으로 期待합니다.

그런 努力이 보일 때 우리 民主黨은 우리의 黨策에 執着하지 않고 聲援을 보낼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本人은 結論을 맺읍니다.

우리 國會議員들의 責務는 나와 나의 政派의 利益이라는 慾心을 버리고 虛心坦懷하게 나라를 걱정하고 民意에 順應하는 道德政治의 時代를 열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國民들은 이제 實質的인 進展없이 改憲問題를 둘러싼 말의 攻防만 되풀이 하는데 지칠대로 지쳐있읍니다.

이번 國會가 위대한 合意의 産室이 되어 成熟한 政治를 해 위대한 合意의 改憲이 될 수 있도록 希望하면서 마지막 本議員의 先親이신 玉溪 柳珍山先生께서 後輩政治人들에게 남긴 말을 되새겨 봅니다.

慷慨憤死易 從容就義難

憤怒해서 自決하기는 쉽지만 지혜롭게 亂世를 풀어가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傾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李載灃 時間이 되었어요.

다음은 玄敬大議員 質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玄敬大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여러분!

며칠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國政을 論하던 同僚議員이 拘束되는 아픔을 經驗했읍니다. 그 拘束의 理由가 무엇이건 그것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社會一部의 反國家的 主張과 左翼 汚染現象이 北傀의 끊임없는 악랄한 對南宣傳 煽動과 더불어 一部 不純團體와 學園街에 浸透되어 있는 現實에 심각한 憂慮를 提起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國是에 관한 論爭이 한창입니다만 國是가 反共이 아니라 統一이어야 하며 民族과 統一이 資本主義나 共産主義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兪議員의 주장은 統一을 위해서라면 反共을 포기할 수 있고 自由民主主義體制도 포기할 수 있으며 赤化統一도 좋다고 하는 結論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發言原稿에서는 仁川事態를 强大國의 韓半島 分斷固着化政策에 대한 民衆의 統一鬪爭으로 평가하고, 이미 司法當局에 의하여 容共路線으로 斷罪된 三民鬪爭의 暴力革命路線을 옹호함으로써 北傀의 주장에 同調 鼓舞 讚揚한 결과가 되어버렸읍니다. 自由民主主義를 憲政의 基本으로 하고 있는 限 이를 지키기 위한 反共이야말로 大韓民國의 存立根據가 되는 理想이요 原則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政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既成世代와 젊은 世代間에 심한 思想的 葛藤을 겪고 있읍니다.

그것은 既成世代가 解放後의 南北分斷過程에서 思想的 葛藤을 겪었고 6·25戰爭을 겪으면서 分斷時代의 閉鎖的 思想體系를 갖게 된 데 比하여 6·25의 悲劇을 몸으로 體驗하지 못한 젊은 世代들에 있어서는 分斷時代的 思想體系에 埋沒되기를 拒否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東西間 交流의 擴大와 平和共存의 和解「무드」는 우리 社會에 不知不識間에 극심한 思想的 混沌을 가져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우리 社會의 思想的 葛藤 思想的 混沌에 대한 對策은 무엇입니까?

젊은 世代의 健全한 批判이나 民族知性의 殿堂이며 良心의 堡壘인 大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社會改革을 위한 批判이란 觀點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受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國政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 改革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겠읍니까?

第5共和國 出帆當時의 改革意志가 많이 褪色했다고 하는 指摘들이 있읍니다. 解弛

해진 紀綱을 바로 잡고 오늘날 이 社會에 만연하고 있는 奢侈頹廢風潮를 一掃하여 全國民의 道德性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自由民主體制의 維持와 持續的인 國家發展을 위하여 가장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政府의 對策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우리 社會의 思想的 混沌을 정리하고 反政府와 反國家의 限界를 분명히 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健全한 對政府批判이나 反政府運動을 反國家事犯으로 몰아 다스린 적이 없는가 묻습니다.

그러한 事實이 없다면 어떻게 하여 野圈一角에서 政治의 容共造作에 대한 問題가 擧論되는가 이 점에 대한 解明을 要求합니다.

民主主義가 寬容을 本質로 하고 政治에 있어서 敵과 同志의 區別이 없다 하더라도 民主主義의 存在 自體를 否定하는 者는 반드시 民主主義의 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民主主義的 政治秩序에 參與하기 위하여 鬪爭하는 모든 政治集團이 民主主義의 共通된 基礎를 承認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敵과 同志의 區別이 없는 것인지 이를 認定하지 않고 民主主義 그 自體의 存在를 파괴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결코 民主主義政治가 寬容할 수 없는 民主主義의 敵으로 看做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民主主義가 個人의 自由를 尊重하는 自由의 政治를 意味한다 할지라도 自由의 敵에 대한 自由까지를 意味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現實은 어떠합니까? 極少數 左傾勢力의 據點이 되고 있는 大學街에 北傀의 機關紙가 報道한 對南誹謗의 記事를 그대로 옮겨 쓴 壁報가 버젓이 나붙고 있읍니다. 不穩文書가 亂舞하고 붉은 깃발이 나부낍니다. 그래도 政府는 民主主義와 大學의 自律을 理由로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묻습니다.

學園事態의 傍觀이 學園自由를 保障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學事行政은 完璧하게 大學의 自律에 맡기고 學園內의 治安秩序는 政府가 完璧하게 維持해 주는 것이 大學의 自由를 더욱 伸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否認하고 이른바 民衆이 主體가 된 民衆蜂起 武裝鬪爭의 方法에 의하여 民衆解放을 實現하고자 하는 「프로레타리아」 暴力革命路線을 표방하면서 集團的 示威와 防火 暴力에 의하여 社會混亂을 造成하는 集團에 대하여 이를 袖手傍觀만 하고 있을 것인가 政府는 이와같은 不法的 民主主義體制 否定勢力에 대하여 어떠한 措置를 취할 것인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新民黨은 이러한 一部 在野團體와 어떠한 關係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할 時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限 우리 國民 모두가 新民黨의 進路에 대하여 갖고 있는 疑懼心과 不安感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野黨이 이 나라의 將來와 民族의 앞날을 責任질 受權政黨임을 自處한다면 舊態依然하게 場外 非民主勢力의 民衆蜂起에 의하여 執權할 생각을 버리고 당당하게 國民의 支持를 받아 執權할 수 있도록 健全한 政策 野黨으로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할 것입니다.

自由民主體制의 옹호자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同志일 수 밖에 없는 野黨도 自由民主體制의 敵일 수 밖에 없는 體制 否定勢力에 대하여 함께 鬪爭의 隊列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民主體制가 무너지는 날이면 與도 野도 그리고 우리 모두 生存 그 自體의 터전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民主主義는 價値中立的 政治原理가 아니며 異質的인 價値에 대하여는 결코 寬容하지 않고 積極的으로 鬪爭하려고 하는 絶對的 價値의 實踐體系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하여 反共의 第1線에서 목숨바쳐 싸운 우리 先輩들의 빛나는 反共鬪爭의 歷史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읍니다.

議員 여러분!

우리의 40年 憲政史에 있어서 언제나 重要한 政治的 關心事로는 憲法改正問題였읍니다.

現在 展開되고 있는 改憲政局에 대한 政府의 基本的인 立場은 어떠한 것인지 總理의 所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憲政史上 처음으로 與野合意에 의한 새로운 憲法改正案을 마련하고자 憲法改正特別委員會를 構成하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憲法은 制定當時의 現實을 前提로 하고 그 現實을 基礎로 하여 權力構造를 비롯한 未來에의 政治的 「프로그램」을 設定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憲法은 그 出發點이 언제나 現在이며 그 규정의 內容도 現在를 基點으로 한 現狀維持를 그 要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現行 第5共和國 憲法도 過去憲政史에 대한 反省의 土臺위의 10·26以後의 現實狀況에 대한 憲法制定權力者인 全體國民의 政治的 決斷에 의한 것이었읍니다.

우리의 憲政史를 통하여 民主主義의 發展에 沮害되는 가장 큰 要素는 1人의 長期執權에 있었음을 反省하고 大統領單任條項을 두었으며 10·26以後의 政治的 社會的 混亂을 克服하여 이 나라를 지켜가면서 持續的인 經濟成長의 追求로 民生의 安定을 期하여야 한다는 國家的 現實을 감안하여 危機管理政府로서의 大統領制 政府形態를 취하였읍니다.

選擧人團에 의한 大統領의 間選制度는 美國憲法의 大統領間選制와 같은 精神的 基礎위에 直接民主制에 대한 恐怖를 基礎로 한 國家安保的 理由에서 採擇된 것이었으며 選擧人團選擧에 政黨의 參與를 認定함으로써 平和的 政權交替의 길을 憲法的으로 保障하였읍니다.

요컨대 現行憲法은 維新憲法의 肯定的 要素와 否定的 要素를 選別하여 우리 社會에서의 非常事態的 政治現實과 國民의 民主主義에의 慾求를 同時에 充足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國法秩序의 內容을 이루고 있는 政治的 現實은 不斷히 變化를 거듭합니다. 따라서 一定한 時點의 現實만을 對象으로 했던 成文의 憲法은 새로운 現實에 對應할 수 있는 어떠한 措置를 취해야만 規範으로서의 實效性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經濟的 社會的 發展이라고 하는 것은 先進國에 比較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것입니다. 現在의 우리 社會의 變化가 그와 같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急激한 變化에 對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改憲의 問題를 最大의 關心事로 論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分明한 것은 지금의 改憲政局이 4·19義擧로 李承晩大統領이 下野한 以後 또는 5·16軍事革命으로 憲法이 폐지되고 旣存의 國法秩序 政治秩序가 붕괴되고 난 후에 새로운 秩序形成을 위하여 改憲을 하는 경우와는 分明히 다르다고 하는 事實입니다.

지금은 旣存의 憲法體制와 國法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開發途上國家의 急激한 産業化의 結果로 빚어진 새로운 現實에 順應하기 위한 現秩序의 修正과 補完을 위한 改憲論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現在 展開되고 있는 改憲政局이 갖는 特質과 憲法改正論議의 限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제 80年代後半의 現 時點에서 우리가 追求하여야 할 最高의 價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政治的 社會的 安定과 經濟的 成長속에 眞正한 民主主義의 發展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改憲論議의 焦點이 되고 있는 權力構造의 形態에 관하여서도 이와같이 이 時代가 追求하는 最高의 價値 즉 民主化의 實現을 위하여 보다 적합한 政府形態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따라 選擇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歷史的으로 落後된 形態를 고집하거나 反對로 하나의 理想鄕만을 追求한다면 그 憲法은 不可避하게 現實앞에서 挫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事實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議院內閣制와 大統領制中 어느 것이 보다 民主主義理念에 맞으며 高度産業社會로의 發展에 따라 多元化된 各界各層의 갈등을 解消하기에 보다 適合한 政府形態인가를 묻습니다.

大統領制는 그것이 갖고 있는 政治的 결함에도 不拘하고 그 安定性과 能率性 때문에 開發途上國家이며 南北對峙下의 危機管理政府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憲政史에 그

나름대로 寄與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建國初期에는 國家의 基礎를 다지고 6·25의 危機를 克服하는데 있어서 5·16後의 60年代에 있어서는 經濟開發을 통한 貧困으로부터의 解放을 위해서 그리고 70年代에는 越南敗亡 以後의 緊迫한 南北關係에 있어서 國力을 集結하고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이루는데 寄與한 貢獻을 無視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國家安定과 發展에의 寄與에도 不拘하고 結局 우리의 憲政史에 있어서의 大統領制는 1人의 長期執權에 의한 權威主義的 大統領制로 變質되고 말았고 이 나라 民主主義 發展을 위해서는 不幸한 일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民主主義의 發展이라고 하는 側面에서 大統領制가 우리의 憲政史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評價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的 利益의 對立과 서로 다른 意見들을 中和할 수 있는 機能을 갖고 있는 것이 議院內閣制이며 議院內閣制에 있어서의 이 中和的 機能이야말로 오늘의 多樣한 産業社會에서 階級的 獨裁를 防止하고 一般意思에 의한 國民的 總和를 形成하게 하는 唯一한 手段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 社會의 發展段階에 비추어 議院內閣制가 보다 適合한 制度라고 보는데 政府의 見解가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저는 新民黨에 대하여 早速히 憲特委를 正常化해서 改憲問題를 진지하게 論議할 것을 懇曲하게 提議합니다. 아시다시피 憲特委는 野黨의 主張을 수용하여 構成되었으며 그 동안 여러차례 會議를 통하여 各黨이 내놓은 改憲試案에 대한 提案說明까지 마쳤읍니다.

이제 質疑答辯을 통해 改憲의 本質的 問題에 관하여 論議가 始作되는가 했는데 어느날 公聽會 中繼問題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會議가 中斷되고 이제는 野黨이 實勢對話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憲特에 不參하겠다고 했다가 大統領直選制意志가 보여야 參與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改憲雰圍氣造成을 위하여 拘束者를 釋放하고 赦免 復權을 斷行하라는 主張을 내놓고 있읍니다.

더 나아가서 憲特運營과는 별도로 議院內閣制와 大統領直選制에 대한 選擇的 國民投票라는 違憲的 提議를 하고 投票管理의 擧國內閣構成을 要求하고 있읍니다. 수시로 變하는 이러한 野黨의 態度는 改憲問題를 한낱 政權鬪爭의 方法으로 利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읍니다. 여러가지 口實을 부쳐 憲特을 파탄시키고 또 다른 鬪爭의 方向을 摸索하는 것은 改憲鬪爭을 場外의 民衆暴動으로 연계시켜 暴力的 方法에 의한 政府顚覆과 政權奪取를 企圖하는 것으로서 公黨으로서의 野黨이 취할 態度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한 意圖가 없다면 與野 合意에 의하여 構成된 憲特에 無條件 參與하여 진지하게 改憲問題를 論議하여야 할 것입니다. 野黨이 내세우는 實勢對話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實勢이고 누가 虛勢입니까? 主權在民의 民主國家에서는 國民에 의하여 選出된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以外에 다른 實勢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會에서의 憲法論議를 포기하고 場外로 나간다거나 野黨自身의 집안 事情때문에 制度的 實勢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잃을 실字의 失勢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相對로 對話하라고 하는 것은 民主主義制度의 포기를 意味할 뿐입니다.

또 野黨은 與野間에 改憲하기로 한 合意가 있었으므로 그 동안 改憲을 主張하다가 拘束된 사람들을 全員 釋放하여야 할 것이며 赦免 復權도 행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野黨의 主張대로 改憲을 要求하거나 民主化를 主張한 理由만으로 拘束된 사람이 있는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野黨의 拘束者 釋放要求는 歷史的 狀況과 現實에 대한 認識의 誤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10·26以前의 우리의 政治狀況은 緊急措置에 의하여 維新憲法의 誹謗이나 改憲主張自體를 犯罪로 다스렸읍니다. 그러나 10·26以後 緊急措置가 解除되어 處罰에 法的 根據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釋放하고 復權해 주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었읍니다. 그러나 第5共和國 出帆以後 오늘까지 現行

憲法에 대한 誹謗이나 改正要求가 犯罪로 規定되어진 적은 전혀 없읍니다.

憲法誹謗과 改正要求의 自由가 지나칠만큼 넘쳐 흘렀읍니다. 그렇다면 派出所에 火焰瓶을 집어 던지고 外國公館을 不法占據하고 私製爆彈을 투척하여 사람을 殺傷하여 拘束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改憲을 主張하기만 하면 釋放하라는 것입니까? 꼭 같이 法을 어겨 拘束된 사람들에 대하여 改憲主張을 하였다는 理由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釋放하고 憲法을 改正하기로 與野間에 合意했다는 理由만으로 改憲을 主張하면서 저지른 다른 犯罪를 容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人氣迎合的 主張입니다.

拘束者의 釋放이 결코 改憲協商의 前提條件이 되어야 할 아무런 理由가 없읍니다.

新民黨이 昨年 改憲協商時 釋放을 要求하며 提示한 이른 바 良心囚에는 統革黨事件 南民戰事件 在日僑胞間諜事件 美文化院防火事件 간첩을 포함한 國家保安法등 違反者들이 대부분이었읍니다. 學問上 良心囚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들을 良心囚라 할 수 있겠는가? 自由民主主義信奉者라면 自由民主體制를 否認하는 犯罪者들을 良心犯이라는 이름으로 美化하고 英雄視할 수 있겠는가? 政府의 答辯을 바랍니다.

野黨은 또 大統領直選制만이 國民의 自由로운 政府選擇權을 保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憲法制定權力의 主體인 國民은 어떠한 政府形態를 選擇할 것인가를 決定할 權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 選擧라고 하는 主權의 行使를 통하여 政權擔當者를 選擇할 수 있는 權利가 바로 自由로운 政府選擇權 保障인 것입니다.

만약에 野黨의 主張대로 大統領直選制만이 國民의 自由로운 政府選擇權을 保障하는 것이라면 議院內閣制를 採擇하고 있는 英國 西獨 日本 「캐나다」 등은 이러한 權利가 保障되지 않고 있으며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그것이 保障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점에 관한 政府의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나 모두 國民의 自由로운 政府選擇權이 保障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運用過程에 있어서 國民의 意思가 굴절없이 反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일 것입니다.

新民黨의 李敏雨總裁께서 憲特委에서 또 며칠전 代表演說을 통해서 議院內閣制下에서의 國民의 自由로운 政府選擇權 保障與否는 國會議員選擧制度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읍니다.

그것은 國會議員選擧制度의 內容 如何에 따라서는 議院內閣制도 國民의 政府選擇權을 保障하는 制度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大統領直選制만이 國民의 政府選擇權을 保障하는 것이라는 自己論理의 모순성을 스스로 露呈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議員 여러분! 民主主義는 相對主義의 世界觀을 基礎로 하고 있읍니다. 相對主義에 있어서는 批判과 實證을 거친 眞理와 價値만을 經驗的으로 認定합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民主主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意見과 主張은 同等한 것이며 어떤 한 사람의 意見과 主張만을 絶對로 올바르다고 斷定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民主主義의 政治가 妥協의 政治를 意味하게 되는 理由가 있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民主主義를 하겠다고 主張하는 野黨은 對話와 妥協을 拒否한 채 大統領直選制만이 民意이며 이를 관철하는 것만이 民主化라는 獨善과 我執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한 個人의 意見만이 옳고 그의 政治哲學만이 民主主義인양 고집하며 相對方에 대하여 一方的으로 自己主張만을 强要하고 對話와 妥協을 拒否하는 政治的 立場이야말로 相對的 眞理와 相對的 價値의 認識을 否定하는 獨裁主義的 政治秩序의 世界觀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新民黨은 새 憲法案의 權力構造形態를 결정하기 위하여 議院內閣制와 大統領制를 놓고 選擇的 國民投票에 붙이자는 提議를 했읍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與野間 意見對立이 있으므로 國民投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合理的인 것처럼 생각될

지 모르나 이러한 發想이야말로 違憲的인 議會主義의 포기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國民投票의 對象이 될 수 없읍니다. 改憲問題는 憲法 第47條가 규정하는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政府形態中에서 어느 하나를 選擇하는 問題는 高度의 政治的 判斷과 技術을 요하는 事項으로서 그중 어느 하나를 選擇하더라도 具體的 內容에 있어서는 많은 見解差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賛反을 묻는 國民投票의 對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兩者擇一 强要式의 國民投票는 그 以外의 意見을 가진 國民의 意思를 완전히 무시하는 結果가 됩니다. 우리 憲法은 大統領 또는 國會議員過半數가 發議한 改憲案을 國會議員 3分之 2以上의 賛成으로 國民投票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改憲은 이 節次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新民黨이 違憲的이고 世界憲政史上 類例없는 兩者擇一 强要式의 國民投票를 提議하는 底意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改憲案을 發議하고 議決할 權限을 갖고 있는 政治의 場인 國會를 버리고 場外로 나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國會에서 改憲問題에 관하여 진지하게 論議하기도 拒否한 채 妥協을 위한 노력조차도 拒否한 채 國民投票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政治의 포기요 議會民主主義의 포기일 뿐입니다.

野黨은 이 提案이야말로 現 難局을 收拾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解決策이 아니라 問題發生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全數輿論調査의 意味밖에 없는 이러한 國民投票는 假想的으로 존재하는 國民意思의 자기모순을 招來할 우려가 있고 代議制에의 不信은 드디어 國會無用論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投票管理의 過渡內閣構成을 要求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政變이 일어났읍니까? 政權의 空白期에나 나옴직한 이러한 要求야말로 超憲法的 發想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議員 여러분! 貧困의 악순환속에서 發展이란 不可能하다는 기막히게 가난하고 資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 1人當 國民所得 2,000弗이 넘는 中進國으로 발돋움하였읍니다. 量的으로 크게 成長한 產業化된 우리 社會에 있어서 社會 갈등의 解消를 위하여 合理的 分配의 問題가 重要한 課題로 登場하였읍니다. 勞使間 都農間 地域間 階層間의 갈등을 解消할 수 있는 合理的인 分配의 方法으로 政府는 어떠한 構想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0年代 以後 우리는 이 地球上의 어느 國家보다도 확실하게 量的成長 質的變化 福祉의 擴散이란 發展의 次元을 가장 짧은 時間에 이룩하였읍니다. 이러한 國家發展을 一部에서는 時代의 變化에 따른 당연한 結果이며 國際的으로 그만큼 經濟事情이 좋아졌기 때문일 뿐이라고 過小評價하는 見解도 있읍니다. 그러나 60年代初 우리와 비슷한 後進國이었던 나라들의 지금의 形便을 比較해 본다면 이것은 政府와 企業과 勤勞者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것임을 認定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國民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發展을 持續하면서 量的 質的으로 균등한 福祉生活을 全國民이 고르게 營爲하게 될 수 있는 社會가 언제 오겠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天地開闢이 일어난다 해도 하루 아침에 全國民이 고르게 모두 잘 살게 되는 그러한 世上은 없읍니다. 福祉生活의 균등한 擴散은 發展과 竝行되어야 합니다. 發展위에서 福祉生活이 營爲되고 持續될 수 있는 것이지 극소수 幻想的 理想主義者들의 생각처럼 「프로레타리아」革命이나 民衆蜂起에 의한 體制顚覆에 의하여 實現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40年憲政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時點에 서 있읍니다.

과거 어느 國會도 實現해 보지 못한 民主的 節次에 의한 合意改憲을 創出해 내야 하는 막중하고도 신성한 使命을 지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個人의 我執과 黨利黨略을 떠나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투철한 公人意識으로 民主의 大長征을 시작하여야

하겠읍니다.

다양한 個別意思에서부터 하나의 拘束的 全體意思를 形成하는 것이 더 以上 不可能한 곳에서, 그리고 說得이나 多數決의 方法으로 政治的 目標를 設定하고 實現하는 것이 더 以上 不可能한 곳에서는 政治的 行爲統一體로서의 國家는 붕괴되고 만다고 하는 事實을 깊이 認識하고 忍耐와 寬容으로 對話와 妥協에 의한 合意改憲을 이룩함으로써 이 나라 憲政史에 길이 남을 歷史的 國會가 되기를 期待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載灃 다음은 金顯秀議員 나오셔서 補充質問해 주십시오.

○金顯秀議員 新韓民主黨所屬 金顯秀議員입니다.

議長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과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本議員이 質疑한 내용에 대한 答辯이 명확한 答辯이 되지 못한 部分이 있고 해서 補充質疑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國務總理는 答辯에서 우리 新民黨이 提議한 大統領直選制改憲案에 대해서 答辯하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國民所得이 2,000弗을 넘어섰고 여러 分野에서 國民水準이 向上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政治制度는 議院內閣制가 바람직하다"고 答辯을 했읍니다. 물론 우리 新民黨도 內閣責任制나 議院內閣制가 民主主義的인 制度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大統領直選制改憲을 主張하는 이유를 분명히 더 밝히겠읍니다.

또한 民正黨政權은 말하기를 新民黨은 解放後 줄곧 內閣責任制를 主張해 오다가 이제 와서 民正黨이 內閣責任制를 하자고 하니까 大統領中心의 直選制改憲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黨利黨略의 所產이라고 反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野黨은 4·19以後 民主黨政權 이래 內閣責任制가 우리 國政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政治經驗下에서 5·16「쿠데타」는 우리가 糾彈을 하면서도 大統領中心制를 通하여 平和的인 政權交替를 主張해 왔을 뿐 內閣責任制를 主張한 적은 4·19革命以後 5·16「쿠데타」가 있은 以後부터는 전연 한번도 없었읍니다.

또한 民正黨은 大統領直選制는 選擧遊說를 통해서 群衆集會가 불가피한데 數十 數百萬의 群衆이 운집하면은 혼란과 폭동을 우려하지만 直選制改憲이 성취된 이후의 群衆集會이기 때문에 수준높은 國民意識으로 보아서 전연 우려할 바가 없는 것이고 또한 다만 敗北意識에서 나온 억지 반박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民正黨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政治經濟 社會 文化 敎育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先進國家들이 大統領中心의 直選制 權力構造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으며 반면에 內閣責任制나 間選制를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大統領中心制보다는 內閣責任制를 해야 한다고 民正黨은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先進國家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찌기 言論의 自由가 보장되고 議會民主主義가 活性化되고 또한 政黨政治가 정착이 되고 거기다가 地方自治制가 실시되어서 地方議會뿐만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의 長까지도 選擧하도록 되어 있고 選擧制度가 公務員과 軍人이 嚴正中立을 지켜서 民意가 정당하게 反映될 수 있는 公明選擧가 보장되어서 우리나라도 참된 自由民主主義가 실현되어 國民 각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의해서 政府도 선택하고 大統領과 國會議員도 선택하도록 보장만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內閣責任制를 反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與野 議員 여러분과 國務委員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憲政이 수립된지 38年이 경과하는 동안 25年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軍事獨裁體制下에서 自由와 主權을 박탈 당하고 살아 왔읍니다.

그리고 三權이 보장되지 않은 大統領中心의 中央執權體制下에서 大統領 長官 道知事 市長 郡守 區廳長 그리고 洞長 面長 統長 里長 班長 새마을指導者에 이르기까지 命令一下에 劃一的으로 大小 選擧가 있을 때마다 黨員은 뒷전으로 하고 全 公務員이